

1 개요

사만이본풀이는 액막이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화이다.

사만이는 백년해골을 조상으로 섬긴 덕에 정해진 수명을 넘겨 오래 살 수 있었다.

2 내용

주년국땅 소수만이가 조실부모하여 거지로 살다가 15세가 되어 혼인하였다. 부인의 바느질 품팔이로 연명하면서 자식이 늘어 살 방도가 없었다. 하루는 부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면서 장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하였다. 수만이는 장에 가서 돌아보다가 장사치의 말에 혹하여 쌀 대신 마세총[馬上銃]이라는 사냥총을 사왔다. 부인은 크게 원망하였으나 수만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냥을 다니기 시작하였다.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던 차에 백년해골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다가 조상으로 모셨다. 그 뒤로 사냥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다.

수만이가 33세가 되는 해 어느 날 백년해골이 꿈에 나타나 정명(定命)이 되어 차사가 잡으러 올 것이니 미리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인으로 하여금 굿을 하게 하라고 일러주었다.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차사가 수만이를 잡으러 오다가 제사상을 보고 배고픈 김에 제물을 먹었다. 차사는 제사상의 주인이 수만이임을 알고 차마 잡아갈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갔다.

그리고는 저승 문서에 적힌 정명 30(三十)의 열십자(十字)를 살짝 일천 천자(千字)로 고쳐놓았다. 염라왕이 따지자 문서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우겼다. 그 결과 수만이는 삼천년을 살았다.

3 특징

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. 수만이본풀이는 액운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제차인 액막이에서 구연한다.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간절히 기원하면 그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그런가 하면 백년해골을 신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두개골 숭배라는 매우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다른 자료에서는 소만이 대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대신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경우도 있다. 한 해 집안의 평안과 생업의 풍 등을 기원하는 멩감제에서 구연하기도 하는데, 이에 따라 ‘멩감본풀이’라고도 한다.

④ 핵심어

주년국, 소소만이, 조실부모, 품팔이, 머리카락, 마세총[馬上銃], 사냥총, 백년해골, 정명(定命), 꿈, 머리카락, 거지, 부자, 멩감본풀이

⑤ 원전 서지사항

소만이본풀이(현용준·현승환, 《제주도무가》,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, 1996)

⑥ 관련 자료